



만흥(漫興) | 윤선도

산수 간(山水間)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
그 모른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
어리고 하암¹⁾의 뜻에는 내 분인가 호노라

<제1수>

▶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함.

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²⁾ 머근 후(後)에
바윗 곳 물가의 슬카지 노니노라
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

<제2수>

▶ 보리밥과 풋나물을 먹고 물가에서 노는 즐거움

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보니
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라
말씀도 우움도 아녀도 물내 묘하호노라

<제3수>

▶ 자연에 몰입된 삶의 즐거움

누고서 삼공(三公)도곤 닳다 호더니 만승(萬乘)³⁾이 이
만하라

㉠이제도 헤여든 소부 허유(巢父許由) | 낙뚝터라

아마도 님천 한흥(林泉閑興)을 비길 곳이 업세라

<제4수>

▶ 자연을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

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랴실사
인간 만스(人間萬事)를 혼 일도 아니 마더
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(江山)을 덕히라 호시도다

<제5수>

▶ 자연 귀의의 삶에 대한 만족감

강산(江山)이 도타 혼들 내 분(分)으로 누얼느냐
님군 은혜(恩惠)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
아프리 갑고자 호야도 희울 일이 업세라

<제6수>

- 윤선도, <만흥(漫興)>

▶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.

여휘 풀이

1) 하암 -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. 2) 알마초 - 알맞게.

3) 만승 - 천자의 지위.



핵심점점

<만흥(漫興)>

시구풀이

• 산수 간(山水間)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

-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 속 한 바위 아래 풀과 짚으로 엮은 초라한 움막인 '뛰집'을 (새) 짓는다고 하니

• 그 모른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

- 깊은 산 속에서 아무 부담 없이 한가로이 살아가려는 나의 뜻을 모르는 남들은 (산 속에 때를 짓는 나를 보며) 나를 비웃는다 하지마는

- 산속에서 은거하며 살아가려는 화자의 뜻을 모르는 '남들' 이기에, '남들'은 화자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.

• 어리고 하암(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)¹⁾의 뜻에는 내 분인가 호노라 <제1수>

-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사람인 나의 생각에는 (이렇게 때를 짓고 사는 것이) 내 분수에 맞는 삶이라 생각하노라. (안분지족의 삶)

- '남'과 '하암(화자)'이 대비되는 부분이다. 화자가 자신을 '하암'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지만, 그 이면에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신이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자부심이 나타나 있다.

• 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[알맞게]²⁾ 머근 후(後)에

- 소박한 음식인 보리밥과 산에서 갓 자란 산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(이연산도의 삶)

- '보리밥 풋나물'은 '도시' 혹은 '속세'의 화려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이 아닌, 시골이나 깊은 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이기에, 보리밥과 풋나물을 적당히 먹는 작가의 본 모습을 통해 작가가 자연 속에서 은둔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• 바윗 곳 물가의 슬카지 노니노라

- 바위 끝 물가에 앉아 실컷 노는구나.

- 물가에서 '알맞게 먹고' '슬카지 노니'는 이러한 삶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한가하게 사는 삶인 까닭에, 현재 화자가 번거로운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.

- '알마초'와 '슬카지'는 '적당히'와 '실컷'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까닭에, 본 작품이 '순 우리말을 적절히 활용한 작품'임을 알 수 있다.

•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

- 그 밖의 다른 나머지 일들이야
- 대표적으로, 벼슬에 올라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. 또는 부귀영화 등 세속적 가치를 말한다.

• **부들 줄이 이시라** <제2수>

- 부러워할 까닭에 있겠느냐
- 관직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고, 자연 속에서 만족스럽게 화자가 지내고 있다.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, 세속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다.

• **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뒤희를 바라보니**

- 산 속 작은 집에서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, 저 멀리 보이는 산을 가만히 바라보니

• **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라**

- 그리운 임이 온다할들 (임을 통해 느끼는 반가움이) 저 산을 보고 지금 느끼는 나의 반가움만 하겠느냐
- 술잔을 들고 산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이 반가운 임을 만난 기쁨보다 더하다는 뜻으로, 인간 세계 보다는 자연 세계가 더 가치 있다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인식이 드러난다.

• **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몰내 도하호노라** <제3수>

- 저 산이 내게 말을 건네거나 나를 향해 웃음을 보이지 않을지라도, 나는 저 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뿐이로다
- '먼 뒤희'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함으로써, 화자가 '먼 뒤희'를 친근하게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: **의인법**
- 산은 한마디 말도, 웃음도 없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데에서 산과 화자의 **이심전심(以心傳心), 심상상인(心心相印), 물아일체(物我一體)**를 느낄 수 있다.

• **누고서 삼공(三公)도곤 낫다 허더니 만승(萬乘)^[천자의 지위]이 이만하라**

- (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에 대해) 누군가는 삼 정승의 삶보다 낫다고 했는데, 만 개의 수레를 거느리며 **부와 권력**을 지니고 산다는 천자의 삶보다도 자연 속 한가한 삶이 더욱 좋은 것 같도다 : **비교법, 과장법**
- '삼공'보다도, '만승'보다도(만승을 거느리는 황제보다도) 현재의 자신의 삶이 더 좋다는 것이기에, 비교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-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제시하고 있다.

• **이제도 헤여든 소부 허유(巢父許由) | 낙뎛더라**

- 이제와 생각해보니 세속의 가치를 멀리하여 속세를 등지고 산 속에 들어가 자연 속에서 숨어 살았던 '소부'와 '허유'가 참으로 약은(영리한) 사람들이었구나
- '소부'와 '허유'의 삶이 작가에게 있어서 약은 삶이 되는 이유는, 화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인 '자연 속 한가한 삶'을 이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: **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해 예찬(고사인용)**

• **아마도 님천 한흥(林泉閑興)을 비길 곳이 업세라** <제4수>

- 아마도, 산과 물 사이에서 한가하게 지내며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즐거움은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

• **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락실사**

- 내 성품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미리 알아서

• **인간 만사(人間萬事)를 혼 일도 아니 맛더**

- 세속적인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일들-예를 들어 관직에 나아가 나랏일을 돌보는 일들- 중

• **한 일도 아니 맛더**

- 그 어느 일도 나에게 맡기지 않고

• **다만당 득토리 업슨 강산(江山)을 덕히라 헐시도** <제5수>

- 다만 (아무도, 그것을 소유하고자) 다툼 이 없는 이 자연을 지키라 하시도다

- 자신의 분수와 처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.

• **강산(江山)이 도타 혼들 내 분(分)으로 누얼느냐**

- 이러한 자연 속 한가한 삶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잘 나서이렇게 좋은 삶을 사는 것이겠느냐

• **님군 은혜(恩惠)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**

- (씨가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된 것) 모두 임금의 은혜 덕분이니, 임금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야 더욱 잘 알겠구나.

• **아무리 갑고자 허야도 허을 일이 업세라** <제6수>

- (2차) 이토록 깊은 임금의 은혜를 갑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현재 내가 임금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로다.

☑ **특징**

- 성격: 자연 친화적, 한정가
- 중국고사를 인용함
-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림
-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함
- '자연'과 '속세'를 가리키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함.
- 화자의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와 물아일체의 자연 친화적 태도가 잘 드러남.

화자가 지향하는 삶		화자가 멀리하는 삶	
가	보리밭 뫼나물 (소박한 안빈낙도의 삶)	가	네나은 일 (속세의 부귀공명, 높은 벼슬, 권력)
나	산자연과 물아일체가 되는 삶	나	삼공(三公), 만승(萬乘) (높은 벼슬과 막강한 권력)
다	소부와 허유가 살았던 임천한흥의 삶자연 속에는 거하는 삶		

✓ 시사 전제방식

	사건	현실(사유)	두 번째
1수	산수	밖의 비웃음	분수에 맞는 안분지족의 삶
2수	보리밭, 뚝나물	그 밖의 일	안빈낙도하는 삶의 즐거움
3수	먼 산	님	자연에 몰입된 생활
4수	임천관흥	삼공, 만승	강호 한정의 삶에 대한 자부심
5수	하늘 강산	인간 만사, 다들 이	자연 귀의의 삶
6수	강산	임금	임금의 은혜 찬양

※ 윤선도, <만흥(漫興)>

- 주제: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
- 해제: 이 작품은 총 6수의 연시조로,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.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과 더 붙어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흥취를 느끼고 있다. 속세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라며 임금에게 감사하고 있다. 작가인 윤선도는 속세에서 벼슬살이를 하며 많은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의 자기의 분수에 맞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.
- 구성
 - [제1수]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함.
 - [제2수] 보리밭과 뚝나물을 먹고 물가에서 노는 즐거움
 - [제3수] 자연에 몰입된 삶의 즐거움
 - [제4수] 자연을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
 - [제5수] 자연 귀의의 삶에 대한 만족감
 - [제6수]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.



'개념' 있는 킹콩

1. 4수의 밑줄 친 '임천(林泉)'과 대비되는 소재의 시어를 5수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.
2. 「만흥」에서 과장법이 쓰인 부분이 어디인지 쓰시오.
3. 「만흥」에서 '유교적 충 사상'이 드러난 구절을 5어절로 쓰시오.
4. 이 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.

[O X]
5. <2수>의 '그나쁜 녀나쁜 일'은 자연에 동화하고자 하는 화자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.

[O X]
6. 화자는 자신의 뜻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답답해하고 있다.

[O X]
7. <4수>의 '삼공'과 '만승'은 <1수>에서 '하암'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.

[O X]
8. 화자는 비록 속세를 떠나 왔으나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.

[O X]
9. <5수>의 '하늘하 아락실사'에서 화자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세사사를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
[O X]
10. 향토적 색채가 묻어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삶을 실감나게 표현했다.

[O X]
11. <5수>와 같은 발상을 보이는 다른 작품으로는, <상춘곡(정극인)>의 '功名(공명)도 날 썩우고, 富貴(부귀)도 날 썩우니'가 있다.

[O X]
12. <제3수>의 '잔'은 '뉘'에 동화된 흥취를 복돋아 주면서 오지 않는 '님'을 기다리는 화자의 근심을 완화시켜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.

[O X]
13. <1수>에서는 작가의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져 '하암'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[O X]

 만흥(漫興) | 윤선도

[개념있는 키크]

- ① 인간만스 ②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(萬乘)이
이만하랴 ③ 님군 은혜(恩惠)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
④O ⑤X ⑥X ⑦X ⑧X ⑨O ⑩O ⑪O ⑫X ⑬X

